

"아빠, 아빠가 해죠!"

- 윤평안

수년 전 시가 \$100 이 넘는 코파문디알 축구화를 키국에서 900 솀에 구매했었다. 당시 환율로 계산해도 \$15 이 채 안 되는 말도 안 되는 가격에 판매했으니, 더군다나 무려 마데인게르마니아였으니 땡잡았다고 쾌재를 부르며 내 것 하나 택함이 것 하나 이렇게 둘을 구매했었다.

제작년 미국 방문 시 그중 하나 들고 가서 몇 번 운동을 하고는 신발 밑창 앞쪽이 떨어져서 쓰레기통에 버리고 키국으로 돌아왔다. 아마 가짜였나 보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뜻밖에 들은 이야기는 그런 신발은 가짜 못 만든다는 거였다.

밑창 폼을 만드는데 드는 기술과 비용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가짜가 있을 수 없고 보나마나 진품이었을 거라고. 밑창이 뜯어진 이유는 신발이 오래되어서 밑창을 붙인 접착제가 오래되어 뜯어진거라는 신빙성 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최근 어느 선생님이 자신의 신발을 말끔히 고친 구두 수선공 이야기를 신이 나서 해주셨다. 얼마나 꼼꼼하게 밑창을 꿰맸는지, 어떻게 가죽을 덧대어 수선했는지, 가격은 또 얼마나 저렴한지.

마침 택함이 축구 시합이 곧 다가오는데 축구화가 없어서 지난번 산 그 코파문디알을 꺼내 들고 그 고려인 구두 수선공을 찾아가 밑창을 떼어내 풀로 다시 붙이고 신 가장 자리를 바느질해서 말끔하게 고쳐왔다.

자신의 발 사이즈보다 1 문이 더 크기 때문에 발가락 앞에 공간이 제법 손으로 눌러지지 만... 그걸로 만족하기로 하고 신발 끈을 꿰다 말고 들고 와서 주문한다."아빠가 해죠."

'얼래? 이걸 스스로 하지 않고?' 라는 생각이 들어온 찰라 0.4 초만에 이내 다른 생각에 도달했다. "아빠는 할아버지한테 이렇게 부탁하지 못 했어." "왜?" "이런 부탁 드리 면 죄송하다는 생각때문에." "아, 이거 죄송한 거야?"

웃으면서 다시 축구화를 가지고 가려는 택함에게 "아, 아니. 죄송한 거 아냐. 아빠가 해 줄게." 이 아이에게는 왠지 버르장머리 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않는다.

스스로 그것도 못하는 아이가 되지 않게 교정하고픈 생각조차 들지 않았다. 그저 뭔가 해주고 싶은 늑등이(도 아니지만) 아버지의 마음이랄까. 밖에서 자기 앞가림을 잘하는 아이니까 집에서 엄마 아빠 앞에서는 언제나 좀 무장해제하고 있어도 용납된다.

"아빠는 기분이 너무 좋아. 할아버지께 존칭을 놓치 못했던 건 그만큼의 거리가 있어서였던 거 같아. 택함과 아빠 사이에 허물없이 격없이 가깝다는 게 너무 좋아. 너도 나중에 아들이랑 그렇게 해~!"

왜 나는 쉽게 아빠 앞에서 가드를 내리지 않았던지. 아마 그건 시대와 환경 탓이었을 거다. 오늘 "아빠가 해죠." 라는 아들의 말 한마디는 막내와 아빠의 간극을 가늠하는 존재에서 우러나오는 자신감이었다.

내게 "아빠가 해죠"는 그렇게 기분 좋은 하루의 의미가 되었다. 택함이는 아빠가 해줘서 기분 좋은 하루의 마무리가 되었을 거다.

.....

아빠 이상한 구두 수선공이다. 기꺼이 자신의 가죽을 찢어 한땀한땀 바늘로 자신을 뚫어 밀창 뜯어져 용도 폐기된 신발 갈아진 아들의 존재를 꼼꼼히 수선/mend 해 회생시킨다. 쓸모없어 버려진 신발인줄 알았는데 어떤 것과도 비교불가하고 무엇과도 대체불가한 명품(Masterpiece)임을 희생으로 증명한다.

그런 아빠에게 나도 가드를 내리고 자신 있게 요청할란다.

"아빠~! 아빠가 해죠."